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달빛소녀와 소년의 눈물

(부제 : 청소년 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개발)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212쪽

주제어 : #환경 #욕망 #개발 #발전 #환경영향평가 #천연기념물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달빛소녀와 소년의 눈물

청소년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개발

구 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거침없이 쓰기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 줄거리 정리하기 • 잠깐 멈춤! 생각! • 옮겨 쓰고 낭독하기	•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4차시		•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5차시		•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읽기 후 활동	6차시	• 내용 이해하기 • 나와 연결하기 • 깊이 이해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7차시	• 토론하기	•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 생각 확장하기	•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 독후감 쓰기 준비 • 독후감 쓰기	• 편하고 쉽게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제목] 소년은 왜 눈물을 흘릴까요?

2. [소제목] '개발'이란 단어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3. [앞표지] 표지의 소녀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환경영향평가	#탈산림화	#수달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똥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똥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1> 동글이와 포실이
<02> 벼랑 위에 선 천국
<03> 시한부 선고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사회의 현실을 알고 나면 깊은 좌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좌절이나 절망을 안긴 사회의 현실이 나 사건을 적어보세요.

어른들은 그냥 반대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법과 제도, 과거 사례를 공부하면 할수록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천국은 파괴될 것이고, 은율이가 누리던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은율이 미래를 떠올릴 때마다 강풍이 부는 날에 높다란 벼랑 꼭대기에 선 기분이 든다. 벼랑 밑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이 검붉은 햇바닥을 날름거린다. 깊은 절망이 나를 집어삼킨다. - 36쪽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4> 당신들의 약취	_____	_____
<05> 은석이의 질문	_____	_____
<06> 순수한 영혼	_____	_____
<07> 나락에서 떠오른 희망	_____	_____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옮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옮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은율이가 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할아버지, 은울산을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비가 얼마나 많은 꿀을 땀는지, 어떤 꽃이 새롭게 예쁜 꽃봉오리를 피워냈는지, 나무들이 합창으로 빚어낸 아침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뿌리섬에서 솟아난 물이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맛이었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기자나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저보다 은울산을 잘 안다고 믿나 봐요. 은울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한 적도 없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은울산을 더 잘 안다는 거죠? 은울산을 저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111쪽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8> 붉은 박쥐		
<09> 해와 달		
<10> 이라두의 발톱		
<11~12> 붉은 모래바람 - 황금빛 희망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이를 열쇠가 여러분 가까이에 정말 있을까요?

“관광단지 개발을 막기만 한다면 우릴 도울 수는 있는 거니?”
고은별이 물었다.
고개를 들어 고은별을 쳐다봤다. 따스한 빛이 느껴지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은율이만큼.
“물론이죠.”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를 열쇠는 대부분 아주 가까운 데 있어.”
“있었지만 사라져 버린걸요.”

203~204쪽

내용 깊이 이해하기

【질문1】 다음 인물들에 대해 파악한 후 질문에 답하세요.

(가)

(가-1) 종인 (31쪽)

“야, 촌놈! 좋겠다. 떼돈 벌어서.”

나가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종인이가 부러운 건지 놀리는 건지 헛갈리는 말투로 툭 내뱉었다.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을이 대규모로 개발된다는 소식을 접한 모양이다.

“그럴 일 없어.”

대꾸하지 말았어야 했다. 종인이 같은 부류와는 말을 안 섞는 게 낫다.

“뭐야? 그런 촌구석에 살면서 팔아먹을 땅도 없는 거야?”

건방짐과 비웃음이 섞은 생선 같았다.

(가-2) 이장 (41쪽)

“말 돌리지 마세요. 혹시 그 사람들한테 몰래 돈 받으셨어요?”

이장님 얼굴이 별걸게 달아올랐다.

“뭐? 아니, 어린 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정곡을 찔렸을 때 나오는 과민 반응이었다. 돈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배신한 사례는 인터넷에서 술하게 접했는데, 그 일이 우리 마을에서도 벌어지는 모양이다. 절망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장님, 돈 받았죠? 어떻게 돈을 받고 마을을 팔아넘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3) 미순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68~70쪽)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 바로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 거기서 미순 할머니 집이었다. 놀라서 열린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놀라서 뛰어나왔다.

“미치겠네.”

굵은 남자 목소리였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똥고집을 부리세요?”

짜지는 여자 목소리가 뒤따랐다.

…… (중략) ……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그러고는 며느리가 간드러지게 웃었다.

“진작 그러시지. 괜히 이 고생을 시키고.”

아들이 투덜거리자 며느리가 남편을 책망했다.

“어휴, 당신도 참. 어머님이 신중하셔서 그래요. 그 덕분에 10배나 더 받게 됐잖아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조금 전까지 사납게 몰아치던 악독한 며느리는 사라지고, 상냥하기 그지없는 며느리가 나타났다.

(가-4) 교장 (92쪽)

교장 선생님이 징그럽게 웃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꺽정이 옳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셔서.”

어리둥절한 교장 선생님을 두고 교장실을 나왔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의원님! …… 내일 점심이에요? 그러시면 ……”

의원이라는 호칭이 들리자 모든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다. 또다시 속이 메스꺼웠다. 구토가 일어났다.

(가-5) 기자 (107쪽)

“학교 공부는 잘하겠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기자가 한가한 줄 알아요? 어린애가 만든 자료나 뿌리면서, 이 큰 사업에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하고, 정신들 차려요! 사람들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말아야.”

기자에게서 교장 선생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어쩌면 저 기자도 그 시의원이나 시장과 이어진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었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더러운 인간들, 시공장에서 뒹구는 주제에 너희는 깨끗하라고 훈계하는 위선자들.

(가-6) 김성팔 시의원 (169쪽)

“별 허접한 새끼들까지 의원이랑 맞먹으려고 들어. 어휴, 빌어먹을.”

양복을 터는 시늉을 하던 김성팔 의원은 정문 옆에 자리한 작은 천막을 보더니 험악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저건 또 뭐야? 저런 쓰레기는 왜 그냥 뒤? 조금 뒤면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저따위로 둘 거야?”

김성팔 의원이 짜증을 내자 경찰 지휘관이 곤혹스러워한다.

“김 의원님, 죄송하지만 법에 따라 집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라 제 마음대로 철거하지 못합니다.”

“저런 쓰레기 더미를 그냥 두란 거야, 뭐야?”

김성팔 의원은 성질을 버럭 내더니 전화를 걸었다.

“야, 이 잡동사니 쓰레기 더미에서 농성하는 빨갱이 새끼들을 왜 놔둬? 빨리 안 치워!”

3-1. 종인, 이장, 미순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교장, 기자, 김성팔 시의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3-2. 이들은 왜 이런 사람이 된 걸까요?

(나)

(나-1) 김지승 : 산림조사원 (110~111쪽)

나는 위원장님 전화를 빌려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남자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내 소개를 한 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산림조사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란 걸 보증해 달라고?”

“몇 군데만 조사해 보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명함을 보니까 자격증이 있으시던데…….”

“도와주고 싶지만…….”

이번에도 실패였다.

“나도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내가 나서면 바로 해고당할 거야. 어쩌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안 그렇더라도 일단 찍히면 이 바닥에서 취업은 포기해야 해. 다른 건 몰라도 내 이름을 걸고 도울 수는 없어.”

실망했지만 비난할 수는 없었다.

“죄송해요,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가 만든 자료, 메일로 보내줄 수 있을까?”

그랬자 변하는 건 없겠지만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나-2) 연극반 선생님 (139~141쪽)

“여주인공 역할을…… 미연이에게 넘기기로 했어.”

예상치 못한 통보였다.

“제가, 연기력이 떨어져서…… 그러신 건가요?”

은율이가 힘겹게 물었다.

“그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는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나.”

선생님은 은율을 위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 (중략) ……

“교장 선생님이 바꾸라고 하셨죠?”

내가 다시 물었다.

“그, 그래…….”

선생님이 마지못해 인정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예정된 학생에게 주인공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너무하시네요.”

선생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다.

“은율은 방학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동네에 닥친 개발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연극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고요.”

“은율이가 연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 공연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선생님도 잘 알아. 그렇지만…….”

말끝이 올라가려다 툭 떨어졌다.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 지시는…… 따라야 해.”

…… (중략) ……

“아니야. 연극반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야. 주연은 아니지만 교장 선생님도 다른 역할까지 막지는 않으셨어.”

선생님이 다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들었다.

(나-3) 담임 선생님 (138쪽)

종례가 끝나고 교실을 나가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목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니 준비하라고 했다.

“선생님께서도 제가 징계당할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가려다가 질문 하나를 툭 던졌다.

“내 판단은 있지만……, 지금은 내 의견을 밝힐 상황이 아니야.”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망스러운 답변은 아니었다.

3-3. 김지승, 연극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은울이가 초조하게 물었다.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 대신 내가 대답했다.

“시장이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한다고 끝이 아니야.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어.”

“그렇지만 시에서 오늘 허가했다면서?”

“그게 끝이 아니야. 아직 절차를 더 거쳐야 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

이상하게 오기가 생겼다. 이대로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참, 관광단지 반대 대책위를 꾸렸다. 청년회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94쪽)

그때부터 평가서 내용을 공부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검색해서 찾아냈다. 설명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내용이 나오면 가지치기를 해가며 세밀하게 공부했다. 그러다 보니 한 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무려 700쪽이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 문제점을 찾는 건 더욱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었다. (104쪽)

3-4. 당신은 (가)쪽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나)쪽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은울이나 은석이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질문2】 이장과 같은 사람들은 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몇 푼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배신하는 걸까요?

“이장 할아버지, 지금 관광단지 찬성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은율이가 끼어들었다. 이장님 이마에 주름이 강하게 잡혔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버릇없이!”
이장님이 은율을 나무랐다.
“어떻게 찬성하실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은율은 피하지 않고 대들었다. 은율이다운 대꾸였다.
“어린 계집애를 아무렇게나 다니게 내버려 두니……. 쫓쫓!”
“말 돌리지 마세요. 혹시 그 사람들에게 몰래 돈 받으셨어요?”
이장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 아니, 어린 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정곡을 찔렀을 때 나오는 과민 반응이었다. 돈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배신한 사례는 인터넷에서 솔하게 접했는데, 그 일이 우리 마을에서도 벌어지는 모양이다. 절망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장님, 돈 받았죠? 어떻게 돈을 받고 마을을 팔아넘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 41쪽 -

【질문3】 왜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나이나 지위를 앞세우는 걸까요?

“네, 오창석입니다.”
딱딱한 공무원 말투였다.
나는 전화 건 용건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러고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문제가 없으니까 없다고 답변했지. 너, 그런데 몇 살이야?”
“제 나이가 왜 중요한가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주장과 근거들은 법률과 관련 규정에 바탕을 두었어요. 그러니 담당자께서도 제 나이를 묻지 마시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답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린 녀석이 관공서에 전화 걸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가 이러는 거 아시니?”
“왜 자꾸 판소리하세요. 저는 민원을 넣었고…….”
“네가 민원을 넣었다고? 네 이름이 뭔데?”
“제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럼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해! 어린 녀석이 버릇없이 전화하지 말고.”
나는 이런 어른이 싫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나이 먼저 따지는 어른이 끔찍하게 싫다. 81~82쪽

토론하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가)

늦게 잤지만 늘 그렇듯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씻고 책을 꺼내 읽었다. 아침에 책을 읽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생각들이 아침햇살처럼 떠오른다. 책에서 작가는 편견을 버리고 사실에 바탕을 두고 사건과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뉴스에서 접하던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는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도 했다. 책을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다. **정말 세상은 더 나아지는 걸까? 이 좋은 환경을 파괴하는 짓을 끊임없이 하는 데도 더 나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했다. 사실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권력과 돈이 없어도 이 거대한 흐름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말이다. 서서히 밝아오는 창문이 내게 희망을 속삭였다. 솔직히 절망뿐이라도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은올이가 누리는 낙원이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었다.

- 66쪽.

(나)

팩트폴니스 (한스로슬링 외 / 김영사)

사람들이 실제보다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여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극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 원인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보다 느낌을 확대해석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이유로 저자는 10가지 비합리적 본능을 제시하는데, 10가지 본능은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함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지만 뉴스는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온갖 부정적인 사건이 있다고 여깁니다. 단순한 예로 비행기가 한 대 추락하면 엄청난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일 년에 수천만 번의 비행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뉴스는 아무런 문제없는 수천만 번에 초점을 두지 않고, 딱 한 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

“혹시, 선생님은 《임격정》 읽으셨어요?”
 “읽었지.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임격정이 권력에 저항한 행위요.”
 “운명에 떠밀린 게 아닐까. 그때는…….”
“선생님은 지금 세상과 임격정이 살던 세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왕과 양반이 주인인 세상이었고,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니깐 달라졌다고 봐야겠지.”
 “정말 달라졌을까요?”
 선생님 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뿌리는 그대로인지도 몰라요.”

- 78쪽

□ 찬성	□ 반대
세상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임꺽정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대동소이하다.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생각 확장하기

【질문1】 은석이의 질문에 답해보세요.

약간 들뜬 듯한 여자가 관광단지에 대해 장황하게 풀어놓는 설명이 들렸다.
 “이쪽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체험학습장을 꾸밈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흐릿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도시 문명에 갇힌 채 감수성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많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냥 물과 풀과 나무뿐이지만 이곳에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해서 체험학습장으로 꾸미면, 이 환경도 경험하고 풍부한 체험도 하면서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게 될 겁니다. 안내장에도 나왔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식물과 자연을 옮겨와서 이곳에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풍성한 체험 학습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에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감수성이 없는 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만을 위한 관광단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기만 하는 관광단지는 참된 가족 관광단지라고 할 수 없지요. 본 관광단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도, 가족 구성원 취향대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중심부에는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기는 놀이공원을, 왼쪽으로 가면 아빠들이 유년 시절 추억과 현재 취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어른을 위한 놀이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저쪽 산자락으로는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방과 휴식공간을 배치해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토록 다양하고 풍성한 관광단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시에서 관광단지 지정 고시도 났습니다. 이제 일사천 리입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말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은울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기운이 싹 빠져나간 듯했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묻자 남자가 긴장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환경감수성을 키운다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게 한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을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남자는 흐르는 계곡물만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생존이 걸렸는데, 이곳에 사는 무수한 생명들이 목숨과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저들은 기껏 조금 더 재미있게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하죠?** 정말 환경감수성을 기르고,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지금 이대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험하면 되잖아요. **보호한다면 왜 파괴하죠?** 도 대체 왜가요?”

【질문2】 시의원은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발전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은 낙후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시장님이 이 사업에 무척 관심이 많으세요.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사업 육성, 이거 우리 시장님 핵심 공약이잖아요. 괜히 민원 넣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취소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먼 산으로 돌렸다.

“지하수가 괜찮은지 알려달라는 민원인데, 그게 왜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구먼.”

“좋게 하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낙후된 마을에서 사실 겁니까?** 관광객이 무려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 오면 돈이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 52쪽

【질문3】 은석이는 나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사람들은 악하고, 세상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모조리 부셔버리려 하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가)

“선생님은 사람들이 선하고, 세상은 괜찮은 곳이라고 믿으세요?”

“네가 방금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내가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선생님도 확신하지 못하시죠? **사람들은 악하고, 세상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왜 이따위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뒀야 하죠?**”

가슴에 불이 붙은 듯 뜨거워졌다.

나는 선생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설아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내 뒤를 따라왔다.

“그리고 선생님!”

“응, 은석아!”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다만 역겨울 뿐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순수한 영혼이 누리는 낙원을 파괴하려는 인간들이, 그리고 그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82~83쪽.

3-1. 정말 사람들은 대부분 악하고, 세상은 착한 사람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곳일까요?

(나)

“할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죠?
은울이가 묻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쓰레기 취급을 당해야 해요? 은석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참고만 살아야 해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쓸쓸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은울이가 보도블록 위로 무릎을 꿇었다. 주름진 할아버지 눈가에 물방울이 언뜻 비쳤다. 은울이가 서서히 상체를 세우더니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꼭 모은 손끝이 아미에 닿았다. 내쉬는 숨결에 붉은빛이 감돌더니 손끝에서 핏물이 떨어졌다.
은울이가 속삭였다.
“모조리 부숴버려.”

172~174쪽

‘은울이는 모든 걸 빼앗겼어.’
심장에서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퍼졌다.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잃었고, 좋아하는 연극도 못 하게 됐고, 은울이 전부인 은울산도 이제 곧 사라질 거야.’
“그러겠지.”
‘이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이 시공창을 깨끗이 치워버릴 거야.’
“나도 시공창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해. 그렇지만 이 방법은 아니야. 무엇보다 이대로 밀어붙이면 은울이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잃게 돼.”

190쪽

3-2. 세상을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석이가 분노에 휩쓸려 저질렀던 것처럼 깨끗이 쓸어버리고 새롭게 일궈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알아두면 쓸 만한 용어사전 : 디스토피아(Dystopia)

유토피아(Utopia)의 반대말. 안정된 질서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디스토피아'는 억압과 통제로 거의 모든 사람이 불행을 겪는 끔찍한 세상을 말한다. 유토피아는 영국의 작가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의 제목으로 원래는 '어디에도 없는 나라'란 뜻이지만, 완벽한 행복과 질서를 이룬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한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에서 변형해서 탄생한 용어로 철저하게 자유와 행복을 억압당하는 국가나 사회를 지칭한다. 디스토피아는 문학이나 영화에서 미래를 그릴 때 자주 등장한다. 조지오웰의 「1984」,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예브게니 자야찐의 「우리들」은 흔히 세계 3대 디스토피아 문학으로 꼽히고, 영화는 정말 많은데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러너>, 앤드류 니콜 감독의 <가타카>는 꼭 보기를 추천한다.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흔히 독후감은 '동기-줄거리-감상', 또는 '요약-인상 깊은 장면-경험·감상'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만 쓰니 독후감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형식'을 택하면 독후감 쓰기도 쉽고, 내용도 신선합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1)형식을 택하고, 2)형식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 3)핵심 요령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쓰면 됩니다. 초고를 쓴 뒤에는 쪽 읽으면서 부드럽게 고치기만 하면 독후감이 완성됩니다.

형식선택	준비항목	독후감을 쓰는 핵심요령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서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책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담는다.(신변잡기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여는 글 :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인터뷰 취지를 쓴다. • 인터뷰 : 실제 인물이 답하듯이 쓴다.(역지사지) • 닫는 글 : 인터뷰 내용 정리, 감상, 생각 등을 정리한다.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자기 경험을 실감나게 소개한다. • 소설과 비슷한 점을 거론하며 깨달고 느낀 점을 제시한다.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기행문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내가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룰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기사를 쓰는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사건소개, 인터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 • 기사처럼 제목을 붙인다.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평가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 • 일정한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평가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사고방식 등을 다룬다.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소개한다. • 한 문장이 내게 끼친 영향, 깨달음, 느낀 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세하게 서술한다.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토론주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한다. • 자기 의견을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 반드시 반대 의견을 다룬다.(반론과 재반론 형식으로)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책 내용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한다. • 책에서 수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서평은 책 소개글이므로 소개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설명한다. • 책이 지닌 매력과 책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독후감 예시는 『청소년 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독후감 쓰기 준비

- 1단계 : 자신이 원하는 독후감 형식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선택한 독후감 형식의 준비사항①~③을 오른쪽 '준비사항①,②,③'에 각각 적습니다.
- 3단계 : 독후감에 적을 세부 내용을 각 준비사항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준비사항①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준비사항① 인터뷰 대상 설정 인터뷰 대상 : 정치, 철학은 주요, 동양철과 정통하게 읽다. 권력으로 모든 것 좌우, 선한 인정을 한의 전 받아들이지 않지. 정치권에서 활동하게 되었. 권력이 왜 선정을 받지 않는지 사유를 포함.
■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준비사항② 문제를 다양하게 준비 1.1 독후감 친구들을 읽었을 때 어떤 친구가? 2.1 권력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3.1 권력에서 어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4.1 권력이 왜 선정을 거부한다고 생각되는지?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준비사항③ 문제 생각해 보기 1.1 책을 읽었는데, 어느 때와 비교 할까? 2.1 독후감에 읽게 된 이유와 이유? 3.1 독후감은 생활의 경험이란 생각이 제일 쉽고 힘들다. 4.1 독후감을 읽어보면 것 같다. 그 생각 들린다. 이윽한가 대한 경우도 경우도 있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input type="checkbox"/>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input type="checkbox"/>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준비사항①

준비사항②

준비사항③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할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독자로서 반응해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독후감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도 있습니다.